

#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인권과 평화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은 여성의 시각에서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행사다.

특히 국내외 여성학자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행사는 세계 여성의 연대 강화와 함께 광주를 여성인권 활동과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학술회의·대학생 토론회

27일 열리는 학술회의는 모두 세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을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아다 요나스(이스라엘 위즈만 연구소 교수)씨가 ‘여성, 과학 그리고 평화’에 대해 발표하며 나오미 골든버그(오타와대 종교학과 교수), 한국염(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 교수), 메리 콘드렌(더블린 트리니티대 여성연구소장)씨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은 ‘여성의 인권과 폭력’이 주제다.

신혜수(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씨의 사회로 무르타르 마이(여성인권운동가)씨가 ‘파키스탄 일반 여성의 곤경’을 주제로,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씨가 ‘전시하 성폭력 문제’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는 조라 바스(인도네시아 여성운동가)씨가

##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



말라라이 조아 도이 디카고 무르타르 마이 신혜수

## 국내외 여성학자·인권운동가 대거 참가... 공연·전시 문화행사도 풍성

‘정의, 민주주의 및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연숙(16대 국회의원)씨가 ‘여성의 세력화와 세계 평화’ 등에 대해 발표하며 도이 디카고(전 시당 대표), 말라라이 조아(아프리카니스탄 국회의원)씨가 참여한다.

28일 오전10시부터는 대학생 토론회가 열린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평화·문화 실현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루차마 마톤(이스라엘 인권을 위한 내과의사회창립

자) 박사와 김경신(전남대) 교수의 특별 강연도 마련돼 있다.

## ▲공연·전시 등 부대행사

26일 오후 8시 컨벤션센터 1층에서는 전야제 축하 공연이 열린다. 박상민, 박마마, 고두메, 김원중, 노래를 찾는 사람들, 최성수, 이용 등 대중가수들과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 외국인 중창단, 어린이뮤지컬팀이 출연한다.

‘여성 인권·평화단체 페스티벌’도 행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열린다. 국·내외 여성단체와 지자체 등 모두 90개 단체가 참여해 체험, 남도 특화, 먹거리, 볼거리 등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28일 오전 10시10분에는 4층 컨벤션홀에서 폐막식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 호신콘서트콰이어 등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등을 들려주며 광주아비지합창단과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지역특별상 수상팀의 공연도 이어진다. 또 행사 기간 중에는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세계여성 인권·평화 구호기금(목표액 1천만원)’ 마련 행사도 함께 펼쳐져 여성발전사, 평화인권 관련 서적 전시, 5·18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린다.

26~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계여성평화포럼을 축하하는 ‘2007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광명여성합창단, 서울영등포구립합창단, 광주동구합창단 등 전국의 44개 여성합창단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친다. 대상 1팀에게는 1천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모두 4천 2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27일 오후 3시부터는 대극장 로비에서 합창단원들의 ‘사랑의 장’ 시간을 마련한 남도 꽃차와 남도 음식명인들이 마련한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광주 김치 축제 등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 공동감독제 성공하려면

지난 2001년 일본의 요코하마는 광주비엔날레의 독주를 견제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미술전)다. 세계무대에 자랑할 만한 문화이벤트가 없었던 일본은 이 트리엔날레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신생대회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무엇보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시선을 끌었던 것은 4명의 미술기획자들을 한데 묶은 공동감독제였다. 1인 예술감독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비엔날레와는 차별화된 시도였던 것이다.

참신함을 내걸었던 요코하마는 그 예 못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코모토 신지, 나가무라 노부오, 난조 후미오, 다테하라 아카라 등 고성강한 4명의 감독은 전시기획에서부터 파티션(전시장 칸막이 설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이견을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준비기간 내내 이들의 ‘불안한’ 등거를 가슴 졸이며 지켜봐 왔다. 다행히 ‘메가 웨이브-새로운 통합을 위하여’라는 전시 주제처럼 각자 목소리 불륨을 최대한 낮춘 큰 잡음없이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사후 평가서에서 (이 공동감독제에 대해) ‘No good’이란 인색한 점수를 줬다. 대회는 무난하게 치러졌지만, 공동감독제로 인한 시행착오를 두 번 이상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요즘 광주비엔날레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다. 2008 비엔날레의 예술감독 리스트에 오른 일부 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예술감독 선임에 올나온 재단은 6개월째 후보를 찾느라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단이 감독 선임문제에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올해 첫 도입한 내외국인 공동감독제 때문이다. 공동감독제는 비엔날레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되 한국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에게 전권을 맡기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국인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카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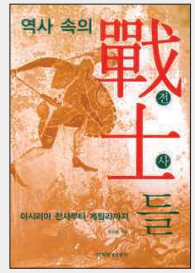
하지만, 의욕만 앞선 나머지 공동감독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후보난’을 톡톡히 겪고 있다. 공동감독제의 경우 1인 감독과 달리 두 사람간의 호흡과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광주비엔날레 내국인 감독에 오른 한 후보가 “재단의 잦은 선정된 외국인과 호흡을 맞출 자신이 없다”며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잘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공동감독제를 채택한 일부 비엔날레들은 시차를 두고 먼저 선임된 감독에게 파트너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술감독 선임은 성공비엔날레로 가는 첫 관문이다. 재단은 공동감독제라는 큰 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외국인 후보 중 한 사람을 먼저 뽑고 그 감독에게 파트너를 고르게 하는 방안을 발휘해야 할 때다. 재단의 유연한 자세가 하루빨리 리퇴양안에 빠진 공동감독제를 구하는 길이다. 언제까지 감독 선임에 매달릴 건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담양 출신 정토웅씨 ‘역사 속의 전사들’ 내

담양 출신 정토웅(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씨가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묶은 ‘역사 속의 전사들’(매일경제신문사)을 펴냈다.



1부(전사들)와 2부(명장들)에서는 전쟁 영웅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출현했고, 어떤 운명을 밟았는지를 살피고, 3부(여성들)와 4부(그 밖의 사람들)는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 게릴라나 의병, 종군기자 등 정사(正史) 밖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편 정씨는 광주고와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30년 넘게 육사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한국문화표현단, 문화독립기행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한국문화표현단(이사장 최준식)은 SK텔레콤 후원으로 8월 8~15일 전라남도 및 제주도 일대를 탐방하는 제3회 문화독립기행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과 전주에서 한국의 왕실 및 사대부 문화를 체험하며 광주에서는 남도 음식을 시작한다. 또 한국의 자연 체험(월출산 국립공원), 한국 전통음악 체험(진도), 불교 문화 체험(대흥사), 해양문화 체험(제주도) 등의 일정이 마련됐다.

참가희망자는 한국문화표현단 홈페이지(http://www.hanmunpyo.org)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야니' (Cinema Night) featuring movie post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캐리비안의 해적3' and '황진이'.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캐리비안의 해적3' and '황진이'.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슈렉3' and '리브&트러블'.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뜨거운 녀석들' and '두번째 사랑'.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오션스13' and '검은집'.